

AUTHOR 양낙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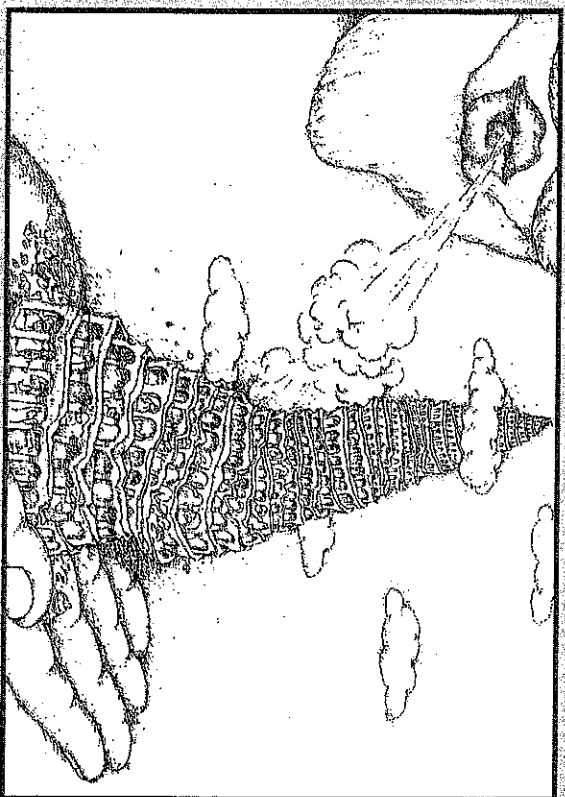
TITLE 중포개혁의 신학적 의미

IN 월간고신

(10, 1998): 17-23.

개원

종교개혁의 달에



종교개혁이 무엇인가? 왜 일어났는가?

오늘날 우리의 무슨 상관성이 있으며 개혁의 걸림들은 무엇이 있는가?

종교개혁의 달 10월을 맞아 이를 타진해 본다.

-
-
-

종교개혁의 신학적 의의

종교개혁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 교회의 사회적 책임

개혁의 걸림들 - 무엇이 걸림들인가?

종교개혁의 신학적 의의

양 낙홍 교수

고려신학대학원

종교개혁은 혁명이었다. 이 혁명은 로부터 역사와 사회, 그리고 문화의 모든 혁명이 뒤를 이었다. 종교개혁은 다른 어떤 혁명보다도 더 강력하고 큰 본적이며 폭발적인 위력을 가진 혁명이었다. 그 뒤를 이어 일어난 청교도 혁명, 미국 혁명, 프랑스 혁명 등의 정치적 혁명은 사실상 종교개혁의 결과로 부산물이었다. 종교개혁은 당시 세계 최고의 권위, 즉 천 년간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렸다는 의미에서 혁명이었다.

중세의 가장 거대한 권위는 교황권이었다.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로마 교회 계급 구조 속에 피라미처럼 포진해 있던 천주교 성직자들은 신적 권위를 등에 업고 중세 세계에서 막강한 영적, 그리고 세속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다. 마틴 루터가 시작한 종교개혁은 이 성직 계급의 권위를 뿌리째 흔들어 놓았다.

중세 성직자의 위치

중세 교회의 사제들은 현대의 프로테스탄트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중세 신학은 성례를 통해 영혼의 초자연적 생명이 창조되고 성장하고 완성된다고 가르쳤는데 그처럼 중요한 성례를 집행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사제들에게 있었다. 그들은 사제로 임직되는 순간 사도들의 계승자 반열에 속하게 되어 그 성례를 집행할 신비한 능력을 받는다고 믿었다. 감독이 인수받는 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성령을 받으

라!"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 펄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참된 살과 피로 바꾸어 수여할 수 있는 성체의 능력이 피인수자에게로 흘러들어간다는 것이었다.

사제들은 모든 진지한 신자들의 신앙 생활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사죄의 은혜를 받는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고해성사를 통해 죄를 고백하는 평신도들에게 사죄(absolution)를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음은 물론 소위 '보속'(satisfaction)을 명할 수 있었다. 개신교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인 '보속'이란 큰 죄를 지은 교인이 사제로부터 사죄의 선언을 얻기 전에 행해야 하는 어떤 종류의 선행이나 고행인데 바로 그 선행이나 고행의 종류와 정도를 사제들이 지정해 주었다. 사제들은 소위 '고해성사'라는 제도를 통해 모든 인간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가질 수 있었다. 왕이든, 황제든, 제후든, 귀족이든, 평민이든 누구든 그들이 지은 죄는 사제 앞에 자백되어 이만 용서받을 수 있다고 믿어졌다. 교황은 한 도시 전체나 심지어 한 나라 전체에 성체의 집행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한 지역에 대한 '파문'은 그 지역의 영적 죽음을 의미했다. 파문이 선언되면 그 순간부터

그 지역의 모든 사제들은 새로 태어나는 모든 유아들에게 유아세례, 그리고 그 지역의 모든 주민들에게 성찬을 베푸는 것을 중지했다.

중세인들에게 있어 사제를 통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보였다. 사제는 구원의 중재자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였다. '사제의 중재'(mediation of a priest)는 중세에 구원의 필수적 요소였다. 중세 말기에는 그것이 크게 응용되어 돈을 받고 베풀어지기 일췌였다. 소위 '면죄부'란 그러한 관행의 일종이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이러한 성직자의 권위에 대한 개념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놓았다. 루터에 의하면 모든 신자가 사제가 되기 때문에 평신도든 성직자든 각각 언제든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제라는 인간이 끼어들 필요는 없다는 것이었다. 이 만인사제는 종교개혁 전반기에 걸친 가장 위대한 원리였다. 그것은 중세 신앙과 종교개혁 신앙을 구별한 최대의 차이점으로 종교개혁의 거의 모든 원리들이 바로 이 '만인사제설'을 중심으로 뻗고 있었다. 루터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사제가 되기 때문에 각자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지책하고 사죄의 은혜

를 받을 수 있었다. 고해성사도 필요하지 않았다. 각 사람은 하나님과 직접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여기서 근대의 개인 존중 정신이 등장한다.

성직의 "비신회화"

루터 종교개혁의 핵심은 성직자가 로마교회가 주장하는 신비하고 특별한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루터는 소위 '성직'에 대한 일종의 '비신회화'를 시도했다. 그는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

더 거룩한 인간으로 구별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로마교에서는 평신도와 성직자 사이에 본질적이고 절대적인 차이가 있었다. 성직자는 우월한 '영적 계급'이고 다른 모든 직업인들은 왕이나 제후를 포함해서 모두 '계속 계급'에 속했었다. 그러나 루터는 그 구분을 부정했다.

거룩한 의식을 집행할 때도 성직자는 무질서를 막기 위해 순서에 따라 의식을 집행한다는 사실 외에 평신도와 아무 차별이 없다고 그는 믿었다. 만일 성직자가 자기 위치를 위용하고 자기의 고유한 일을 수행하지 않으면

루터의 종교개혁은 이러한 성직자의 권위에 대한 개념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놓았다. 루터에 의하면 모든 신자가 사제가 되기 때문에 평신도든 성직자든 각각 언제든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제라는 인간이 끼어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라 주장했다. 성경에는 그러한 구분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소위 성직자들은 신자들에게 믿음의 가르치기 위한 종이요 청지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실교와 성체라는 특별한 기능을 감당하도록 선택되었을 뿐인데 그러한 기능을 가졌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평신도보다

평신도들로부터 태도를 바꾸라는 질책을 받아 마땅하다고 그는 주장했다.

루터는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의 차별성을 축소화했다. 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계급에 속하며" 성직자라고 해서 평신도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루터는 세례받은 자는 누구나 '사제'

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례받은 자는 누구나 이미 사제, 감독, 혹은 교황이 되었다고 지치해도 좋다”는 파격한 주장을 서슴치 않았다.

루터는 교회와 교직에 대해 당시로서는 물론이요 현대의 한국 교인들이 보어도 급진적인 민주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각각 사제와 감독이 될 동등한 권위를 가지지만 모두가 공적으로 가르치고 묵회할 수는 없으므로 회중의 합의와 선택에 의해 그들 중 한 사람이 사제나 감독의 직을 갖게 된다고 보았다. 회중은 지기들 중 한 사람을 택해서 사제나 감독으로 삼고 그로 하여금 나머지 사람들 전부를 대신해서 세례를 주고 성례를 거행하며 사죄를 선언하고 설교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어거스틴, 암브로스, 시프리아 등의 위대한 인물들이 그런 식으로 감독이 되어 사후에 다른 감독들의 추인을 받은 예라고 제시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의 의미

루터는 또 ‘보속’이라는 개념을 제 거했다. 사죄를 얻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완성하신 대속의 공로 외에 그리스도인은 다른 아무 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사제가 지 정해 주는 고행이나 선행을 사죄의 부분적 조건으로 믿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에서 이루신 구속의 종속성과 완전성을 부정하는 일이었다. 그리스도는 길보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한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다. 그런데 죄용서를 위해 더 이상 무슨 행위나 보속적 노력이 필요하단 말인가? 그가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를 위한 제사를 “영단번에”(Once and for all; 단번에, 전부를 위해) 드렸는데 사죄를 위한 다른 무슨 보속적 공로가 필요하단 말인가? 용서와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를 믿는 “믿음” 뿐이었다 (“오직 믿음”). 구원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니 조금이라도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다 (“오직 은혜”).

이 모든 것은 루터가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한 결과로 확신하게 된 사실들이었다. 물론 루터의 이러한 주장들은 수백 년 이상 교회가 가르쳐 온 것들과는 아주 다른 교리들이었다. 그러나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가들에게 중요한 것은 교회나 교회의 전통이 무엇이냐고 말하느냐가 아니라 오직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였다. 삶과 신

앙에 있어 최고의 권위의 근거는 성경이라는 것이었다 (“오직 성경”). 교황 무오설은 잘못된 것이었다. 인간은 누구나 오류를 범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교부들의 가르침에 주로 근거한 교회의 전통을 절대적인 것으로 볼 수 없었다.

잘못된 전통의 권위에 대한 도전

여기서 루터는 소위 ‘전통’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신성하고 무오한 것으로 여겨지던 교회의 전통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 상대화되어야 했다. 그리하여 이때부터 사람들은 권위에 맹목적으로 순종하던 자신들의 자세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때까지는 무조건 옳다고 믿고 따랐던 권위들과 신념들이 어찌하면 잘못된 것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때부터 중세인들은 단지 권위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명령이라는 이유로 순복을 요구하게 되었다. 아무리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들의 가르침이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오류일지 모르며 만일 오류라면 양심상 거기에는 순복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때부터 보다 중요해지기 시작한

것은 성경의 말씀을 각 사람에게 직접 가르쳐 주고 조명해 주는 성령의 역할이었다. 성경 해석의 독점권을 주장한 교황에 대항해서 루터는 신자들이 성령의 조명하심과 가르침에 의지해서 계시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이때부터 사람들의 삶에서 양심과 이성의 역할이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수백년 간 교회와 성직자들이 진리라고 가르쳐 온 사람들이 사실은 진리가 아니라 오류일 수 있다면 이제 참된 진리는 성령의 조명하에서 각 사람이 자신의 양심과 이성을 사용하여 규명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개인적 성경 연구를 통해 확신하게 된 진리는 세상의 어떤 외적 권위도 억압할 수 없는 최종적 권위가 되었다. 개인의 ‘양심의 자유’라는 근대적 개념이 여기서 탄생한 것이다. 각 신자가 성령의 조명 가운데 성경을 읽으며 터득한 진리는 교회나 전통이나 다른 어떤 권위있는 인간의 가르침으로서도 무시하고 철회하지 못하는 최고의 권위가 된 것이다. 이것은 근대의 ‘양심의 자유’ 사상의 원천이 되었다. 이때부터 개신교에서는 신앙 양심이 확신하는 바를 위해 목숨을 초개달이 여기며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는 위대한 개인들, 위대한 신념의 사람들이 탄생했다.

물론 이러한 양심의 자유와 성령의 조명의 강조 속에는 위험도 도사리고 있었다. 즉 무분별하고 미성숙하며 단순한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주관적 해석과 무지의 소산인 어떤 성경 해석을 '양심의 자유'는 미명 하에 끌려지고 집합자가 이단이나 분파로 빠질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 최소한 그것은 교회의 통일성 유지에는 결정적 장애 요인이 되어 '양심의 자유' 사상이 개인교 최대의 약점인 교파 난립으로 이어졌다. 저마다 "양심의 명령에 따라" 믿고 행한다고 할 때 제어할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루터나 칼빈이 강조했던 양심의 자유는 무지하고 미성숙한 "이무나"의 양심이 아니라 성숙하고 분별력있는 개인들의 양심이다.

개혁자들은 또한 중세 천주교를 무지와 미신과 우상숭배의 무더기라 비난했다. 실제로 성자 숭배, 천사 숭배, 마리아 숭배, 성자들의 유골과 유물 숭배, 근거없는 기적에 대한 맹신, 성지 순례 등 천주교에는 미신적인 요소들이 많았다. 그러한 것들이 성경과 이성의 빛의 인도를 받는 개혁가들에 의해 청산되었다. 그리하여 성령의 조명과 함께 '이성'이 종교개혁 이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에도 위험은 있었다. 종교개혁가

들이 인정한 이성은 계시의 한계 내에서의 이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인본주의적 합리주의자들은 이성만능주의를 취하게 되고 그것이 18세기의 계몽주의로 연결되었다. 이성에 머무어 남득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나 다 거부하는 합리주의는 기독교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기독교 신앙과 성경의 계시에는 동정녀 탄생, 부활, 내세, 삼위일체, 그리스도의 양성 등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교리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것들은 카톨릭의 미신파는 다른 것들이었지만 합리주의자들은 이성으로 해결되지 않는 교리와 성경의 계시들을 모두 미신이라고 맹신으로 거부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종교개혁은 교회 시뿐 아니라 인류 역사에 말로 다할 수 없는 커다란 긍정적 기여를 했다. 지난 1천년 동안 일어난 가장 중요한 1백대 사건들 중 루터의 종교개혁이 두 번째 위치를 점하는 것으로 일반 학자들에 의해 평가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극단적인 자들에 의해 부정적인 면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다. 성령의 조명 하에서의 개인의 성경 이해 능력과 양심의 자유가 왜곡될 때 이단과 분파가 발생하여 종교적 무정부주의가 야기된 것이아닌지 개인 존중 사상이 공동체에 대한 무관

심으로 오해되어 불건전한 극단적 개인주의가 탄생한 것이 그 예들이다. 또 중세의 여러 미신들을 거부한 개혁자들의 이성적 시도가 악용되어 기독교 전체를 미신으로 거부하고 이성을 최고의 권위로 삼는 합리주의적 무신론이 등장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맺는 말

루터는 성경에 근거해서 교회와 전통의 권위, 성직자들의 권위, 교황의 권위 등 당시 세계의 가장 높은, 그러나

한 충분한 이해의 부족에 기인한 것이다. 교회사 교육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증명되는 좋은 예이다. 5세기 전 종교개혁자들이 시정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천주교의 관행과 신념들을 현대의 개인교회가 소생시키는 것은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엉뚱한 일인가? 목회자의 '축복권'이나 '거주권'이나 하는 말들은 개혁교회에는 지극히 생소한 개념들이다. 그러한 용어들을 남용하는 것은 천주교의 사제주의 (sacerdotal priesthood)로 회귀하고자 하는 인상을 주는 일로써 종교개혁의 본질적 요소들

목회자의 '축복권'이나 '거주권'이나 하는 말들은 개혁교회에는

지극히 생소한 개념들이다. 그러한 용어들을 남용하는 것은 천주교의 사제주의로 회귀하고자 하는 인상을 주는 일로써 종교개혁의 본질적 요소들 가운데 하나를 부정하는 시도로 보일 위험성이 있다

오류에 빠져 있던 권위들에 도전했다. 중세인들의 "고정관념"을 타파했던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종교개혁은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혁명이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는 루터를 비롯한 개혁가들이 생명을 걸고 반대했던 중세의 잘못된 관행들과 신념들을 멋모르고 채용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 듯하다. 그것은 아마도 종교개혁사에 대

가운데 하나를 부정하는 시도로 보일 위험성이 있다. 무사에게 특별한 영험과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주장은 로마교 체제의 핵심이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종교개혁의 전통 위에서 있다고 자처하는 교회들에도 이런 점에서 많은 혼란의 소문들이 들려 오는 것을 들 때 종교개혁시를 다시 공부해야 할 필요가 절실해진다. **주석**